

## 한국의류학의 연구경향분석 : 1991~1999

나수임 · 이정순 · 배주형  
상명대학교 디자인학부 의상디자인전공

### A State-of-the Art Review of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in Korea :1991~1999

Soo-Im Rha · Jung-Soon Lee and Ju-Hyung Bae  
Dept. of Fashion Design, Sang Myu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s planned to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tudy of Korean clothes through the realistic recognition of the changes of studying issues of each area of the related clothes.

For this purpose, the writer of this thesis have collected, classified and analyzed those various kinds of papers and theses published in the professional magazines of clothes such a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so that I might examine and study the main trend of the related study.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Since the first publication of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in 1959 and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the study of clothes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Furthermore, since 1990 the issuing times of various kinds of Journal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with the foundation of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and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 Theses and papers published in the four greatest Journals of Korean Clothing and Textiles have been studies for the detailed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data. According to the study, It is found that the theses i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have actively studied textiles as they had studied before 1990s and those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have studied history of costumes and those i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have studied costumes cultures and thos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have studied the composition and science of clothes.
3. The order of studying subjects was 1) Design and Aesthetics, 2) Fashion Merchandising 3) Textiles, 4) Clothing Construction, 5) History of Costumes, 6) Costume Culture, 7) Socio -Psychology of clothing, 8) Others. Considering the above mentioned result of the study, most of the main fields of the clothing and textiles study have been studied continuously in balance since 1990 unlike the past although the past studies had been performed largely in some main fields only.

And it was found that fields of clothing styles and clothing goods have been studied most actively since 1990s.

4. The studying field of Design and Aesthetics has showed to have the trend to be studied very actively since 1990s, which has utilized various relevant data with scholastic approach to psychology and aesthetics. Regarding Fashion Merchandising, the study of consumers decision process has been performed most actively. And theses on the international trades have been published considerably more than ever before, which resulted in gradual increase in the study of the fields related with global marketing, internet marketing, textile products exports, and overseas brands, etc.

Regarding Textiles, the field of clothing sanitation and management has been studied more actively than that of clothing materials. In case of clothing construction, the study of physical styles and pattern making has been more active than the other related fields. Fields of socio-psychology of clothing and history costume have been a little reduced.

Field of costume culture has been firmly rooted as an independent subject to be studied in the clothing related study. And study of the clothes has shown various trends of studies of ethnic & folk clothes, religious and ceremonial garments, linguistic & favorite approach to clothes and academic analysis of the data.

*Key words* : design and aesthetics(복식미학), textiles(피복재료), clothing construction(의복구성), history of costumes(복식사), costume culture(복식문화), socio-psychology of clothing(의상사회심리).

## I. 서론

의복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의복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유구하지만 대학에서 의복에 관한 내용이 교육되기 시작한 것은 1872년 Iowa 주립대학에서 "Housekeeping"이라는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29년 가정학 도입과 함께 시작된 의류학은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교육으로부터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양성이라는 전문교육으로 교육목표가 바뀌면서 실용학문으로 발전하여 왔다.

학문의 발전 여부는 사회적 요구의 증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의류학은 의류산업의 발전이라는 중요한 요소에 힘입어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와 같이 발전된 형태를 구성하게 되었다.

인간이 갖는 욕구수준은 다양하고 욕구수준에 따라 만족을 주는 의류제품 또한 다양하지만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을 함께 조화시켜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복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류학이야말로 통합적 시각을 실천하고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의류학은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감각에 대응하여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일체화한 통합

된 연구분야로서 의류학의 연구범위는 실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학제간의 통합적 연구 등의 필요성이 기대되는 학문이다. 의류학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대한가정학회에서 1977년과 1984년, 1990년 세차례에 걸쳐 가정학의 학문영역의 구축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하여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아동학의 4분야를 중심으로 최신 연구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로는 전체적인 의류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논문과 의류학의 각 영역별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정찬진 등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지를 창간호부터 1990년까지 게재된 의류학 관련 논문들의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의류학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였고, 성화경 등은 의류학회지의 창간호부터 1992년까지 게재된 논문과 논문의 참고문헌을 분석하여 학문의 성격, 연구방향, 연구방법, 타학문과의 연계성 등을 고찰하였다. 각 영역별 연구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로서 김효숙은 의복구성분야에 관한 연구논문분석을, 김미자는 한국복식의 연구동향을, 이영혜·이인자는 복식사회·심리학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지의 3개의 학회지를 중심으로 1990년까지의 연도별, 학회지별 연구경향, 그리고 연구주제별 변화 등을 분석하여 의류학 연구의 역사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 의류학의 연구는 1993년에 “복식문화연구”가 창간되어 복식문화영역이 복식사연구의 하위주제로 분류하기보다는 또 다른 영역의 한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1997년에는 패션비즈니스학회가 창립되어 학회지를 창간하는 등의 각 분야별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1990년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의류학 연구주제의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1990년 이후에 새로운 분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를 부가하여 의류학 연구주제의 분류체계를 설정하고 1990년까지의 연구경향과 그 이후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구경향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연구경향의 흐름을 분석한다. 둘째, 의류학의 각 영역의 연구주제별 변화를 파악하여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세계화 사회라는 말로 표현되는 21세기에 의류학이 나아갈 연구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의류학 전문학술지로서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지, 복식문화연구에 발표되었던 의류학 관련 논문을 분석자료로 하였다.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지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복식문화연구는 창간호(1993년 4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논문을 포함하였다. 대한가정학회지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58권의 학회지에 의류학 관련 총논문의 편수는 177편이었으며, 한국의류학회지는 총 53권에 포함된 논문의 편수는 750편, 복식지는 25권에 485편의 논문이, 그리고 복식문화연구는 23권에 27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므로 분석자료로 사용된 논문은 총 1,690편이었다.

### 2. 자료의 분석

#### 1) 연구주제의 분류

의류학의 연구주제별 분류는 정찬진 등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연구자들이 예비조사와 토의를 거쳐 1990년 이후에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분류 가능한 논문을 발췌하여 분석한 결과 복식문화영역이 “복식문화연구”의 창간 이후 학문적 영역의 확대와 성장을 보여 복식문화를 새로운 연구주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복식의장학의 하위주제분류에서 복식디자인과 복식미학 이외에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연구와 메이크업연구가 새로운 연구주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복식의장학의 하위주제로 포함시켰다. 최종연구주제의 분류는 8분야로서 의복구성학, 피복과학, 복식의장학, 복식사, 복식문화, 의상사회심리학, 의류상품학, 기타로 명명하였다.

연구주제의 분류와 연구범위는 <표 1>과 같다.

연구주제의 각 영역별·하위주제별로 구분하는 방법은 제목과 서론에 의하였고 주제가 복합적인 경우는 논문 전체를 참고하여 지배적인 분야에 포함시켰다.

#### 2) 자료분석의 신뢰도

연구주제별 분석의 객관성을 위하여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자료로 채택된 논문 중 총 89편의 논문을 무작위로 발췌하여 연구자 2인이 동일한 논문 89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주제를 명명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신뢰도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를 구하였다.

$$\text{신뢰도 계수} = \frac{2M}{N_1 + N_2} = \frac{2 \times 81}{89 + 89} = 0.91$$

$N_1, N_2$  : 연구주제분류의 신뢰도 검증에 사용된 논문편수

$M$  : 연구주제가 일치하는 논문의 편수

그 결과 신뢰도 계수는 0.91로 높게 나타났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분석자료는 연도별, 학회지별 연구주제별로 나누었으며 연구주제별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5년 간격으로 분류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SPSS를 이용한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lt;표 1&gt; 연구주제의 분류와 연구범위

의복구성학	의복의 기능성	피부면의 형태로 본 기능성, 착용실험에 의한 기능성, 동작기능성, 특수의복의 기능성
	의복의 치수설정	표준치수, 치수분포, 등급법
	원형제작	기본원형, 부분원형, 실물제작고증
	체형연구	연령별 체형연구, 체형의 비교 및 비례, 인체계측
	봉제 기타	제조업체의 환경 실태, 생산과정
피복과학	피복재료학	섬유의 구조, 피복재료의 보건의적·형태적·기계적·내구적 성능, 방직 제품어외의 피복재료, 봉제과학, 신제품소개 및 기타
	피복정리학	계면활성제, 세탁 및 뒤처리, 표백 및 염색, 가공, 환경공학, 피복손상, 품질관리 및 의복생활
	피복위생학	인체생리, 의복재료의 위생학적 성능, 의복과 환경의 온열조건, 의복착용의 위생학적 사항, 각종피복과 위생
복식의장학	복식디자인	디자인 요소와 원리, 컴퓨터디자인, 유행트렌드, 디자이너연구
	복식미학	의복과 예술사조 및 문학, 미의 상징성
	일러스트연구	
	화장, 헤어스타일	
복식사	한국복식사	
	서양복식사	
	동양복식사	
	복식사방법론, 기타	
복식문화	민속복식, 민족복식	
	종교복식, 의례복식	
	기호학	복식언어, 기호학, 의미, 상징, 문화
의상사회심리학	인상형성	
	동조성	
	유행	역할, 자아개념, 성격, 가치관, 욕구, 사회계층, 자아이미지, 신체 이미지, 의복단서
	역할	의상흥미, 디자인 및 피복관심, 의복자유
의류상품학	총미	
	상품선호도	디자인 및 상표선호도, 충성도
	의사결정과정	문제인식, 정보원탐색, 선택기준, 구입행동, 구매의도, 구매동기, 쇼핑상황, 구입후의 행동, 위협부담
	유행	유행주기에 의한 소비자집단
	생활양식	시장세분화
기타	전반적인 구매행위	소비행동
	국제무역 및 기타	유통문제, 유통업체, 시장동향
		의류학교육, 실태분석, 의류학전반에 관한 연구

### Ⅲ. 결과 및 분석

#### 1. 연도별 분포

본 연구를 위해 발췌된 총 논문 1,690편을 근거로 하여 연도별 변화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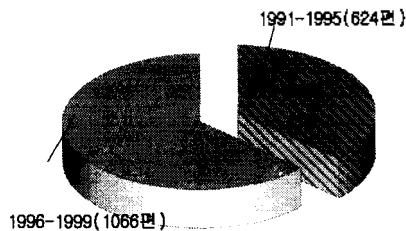
1991~1995년도에는 624편, 1996~1999년도에는 1,066편으로 이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1985~1990시기의 256편과 비교해 보면 1991~1995에는 3배, 1996~1999에는 4배로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9년 대한가정학회지의 창간과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지의 창간이후 의류학 연구는 꾸준히 증가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복식문화학회, 패션비즈니스학회 등의 설립과 함께 학회지 발간회수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의류학 연구의 급진적인 증가는 1999년 현재 전국적으로 의류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 전문대를 포함하여 86개교에 이르러 1990년도와 비교해 보면 2배로 증가되어 학문적 영역의 확대와 성장은 당연한 결과로 분석되며 의류학 연구는 계속 증가될 것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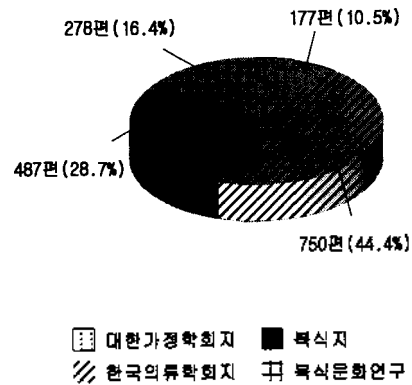
#### 2. 학회지별 분포 및 변화

1991~1999년 사이에 발표된 총 논문 1,690편을 발표학회지별로 분석해본 결과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1985~1990의 기간에 비해서 1990년 이후에는 대한가정학회지의 논문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10.5%에 불과하였고 한국의류학회지는 1985년 이후 가정학회지를 능가하는 논문발표편수로 의류학 전문학회지로 그 위치를 구축한 이후 점점 성장추세에 있어 44.4%의 논문이 의류학회지를 통하여 발표되고 있



<그림 1> 연도별 변화



<그림 2> 학회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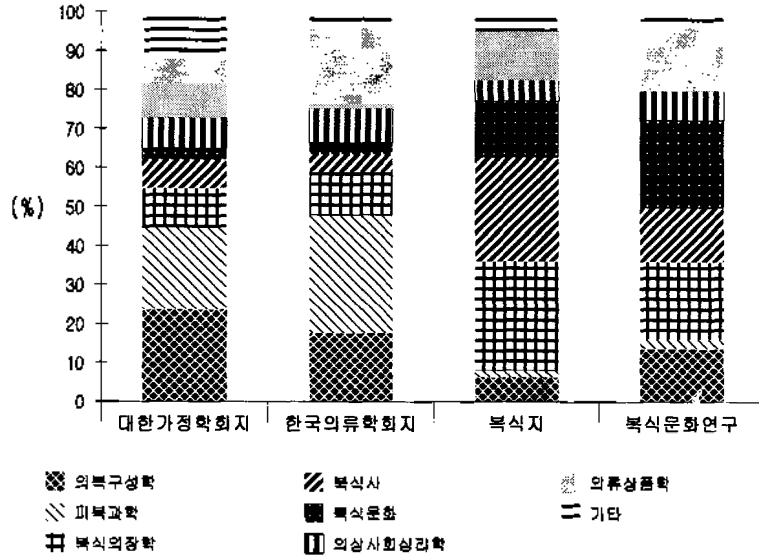
다. 또한 1993년에 창간된 복식문화학회지는 1993~1999년 사이에 전체발표논문의 16.4%를 차지하여 짧은 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

학회지별 연구주체의 분포상황은 <그림 3> 및 <표 2>와 같다.

90년대 이전에는 복식사는 복식지를 중심으로 발표되었고 한국의류학회지는 피복과학 및 의상사회심리학분야가 주로 발표되었으며 대한가정학회지는 피복과학 및 복식사 등이 주로 발표되고 있었다.

1991~1999년의 기간동안에 학회지별 연구주체의 분포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의류학회지는 1) 피복과학, 2) 의류상품학, 3) 의복구성학, 4) 복식의장학, 5) 의상사회심리학, 6) 복식사 순이었고, 복식지는 1) 복식의장학, 2) 복식사, 3) 복식문화, 4) 의류상품학, 5) 의복구성학, 6) 의상사회심리학, 7) 기타, 8) 피복과학의 순이었고, 대한가정학회지는 1) 의복구성학, 2) 피복과학, 3) 의류상품학, 복식문화학회지는 1) 복식문화, 2) 복식의장학, 3) 의류상품학, 4) 의복구성학, 복식사 5) 의상사회심리학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의류학 4대 학회지 게재논문의 주제별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었는 바 한국의류학회지는 90년 이전과 같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분야는 피복과학이었고 복식지는 복식의장학, 복식문화학회지는 복식문화, 대한가정학회지는 구성 및 피복과학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학회지에서 의류상품학 분야의 논문이 과거에 비해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의상사회심리학은 1990년



<그림 3> 학회지별 연구주제의 분포

<표 2> 학회지별 연구주제별 분포

주제별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지		복식문화연구	
	N	%	N	%	N	%	N	%
의복구성학	42	23.7	133	17.7	31	6.4	38	13.7
피복과학	37	20.9	225	30.0	8	1.6	7	2.5
복식의장학	18	10.2	84	11.2	137	28.2	55	19.8
복식사	13	7.3	32	4.4	129	26.6	38	13.7
복식문화	5	2.8	22	2.9	70	14.4	62	22.3
의상사회심리학	14	7.9	66	8.8	26	5.4	21	7.5
의류상품학	27	15.3	157	20.9	61	12.6	47	16.9
기타	21	11.9	31	4.1	23	4.8	10	3.6
계	177	88.1	750	100	485	100	278	96.4

대 이전에 비해서 발표논문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1970년대초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의상사회심리학이 지난 20년간 새로운 학문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므로 1990년 이후로는 기존에 연구되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의류상품학과 연계논문으로 바

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990년 이전에는 학회지별로 뚜렷하게 그 특성이 나타나 복식지는 복식사분야가 전체 80%까지도 발표된 시기가 있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학회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주제에 따른 분포가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3. 연구주제별 분포 및 변화

본 연구에 사용된 1,690편의 논문중 연구주제별 분포는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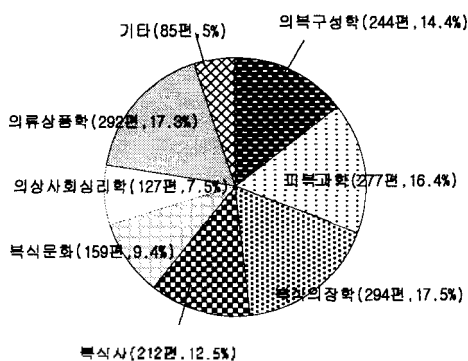
그 분포를 순위별로 보면 1) 복식의장학(294편), 2) 의류상품학(292편), 3) 피복과학(277편), 4) 의복구성학(244편), 5) 복식사(212편), 6) 복식문화(159편), 7) 의상사회심리학(127편), 8) 기타(85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1990년도 이전의 연구경향과는 차이가 있었다.

첫째, 1990년도 이전에는 각 연구분야에서 피복과학(35%) 및 복식사(27%)는 활발한 연구분야, 복식의장학(3.5%) 및 의류상품학(5.5%)은 저조한 연구분야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주제별 구성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전 주제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의류학의 모든 분야가 고르게 연구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가장 하위였던 복식의장학, 의류상품학분야가 1990년도 이후에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로 나타났고 의상사회심리학(7.5%) 및 복식사(12.5%)는 과거에 비교하여 볼 때 연구논문의 수가 현격하게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은 기초학문분야인 복식사, 의상사회심리에 대한 연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 이제는 인접학문과의 연계로 논문이 구성되어 의상사회심리와 디자인, 혹은 의상사회심리와 상품학, 의상



<그림 4> 연구주제별 분포

사회심리와 복식문화, 복식사와 문화인류학, 복식사와 미학 등 복합적으로 연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리나라 의류산업분야가 과거의 생산, 제조업 중심의 체제에서 고부가가치를 중요시하는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학계의 연구경향도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증가되고 소비자중심, 마케팅시대,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인 경향으로 의류학에서도 패션마케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대학에서 의류학과와 소속에도 영향을 주어 과거에 주로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의류학이 생활환경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조형예술학부 등의 소속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복식의장학, 의류상품학이 의류학 전공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의류학에 대한 개념에 영향을 주어 교수들의 연구경향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분야별 연구주제의 하위그룹에 대한 논문편수는 <표 3>에 연구주제의 변화추이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복식의장학 분야는 전체의 17.5%로 선행연구의 결과(3.5%)에 비하여 1990년도 이후에 대단히 활발한 연구 경향을 띠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 분석에서 복식디자인 분야는 감각과 응용을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을 객관화하기 어려운 분야라 연구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1990년도 이후 다양한 시각에서 복식의장학 분야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식디자인분야의 연구로는 의상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등의 연구보다는 의복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디자인발상 및 전개방법, 그리고 색채계획 등 다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단히 활발한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는 복식미학 분야는 특히 현대패션의 예술조형성 및 내용 표현성을 연구하거나 타예술 분야 특히 영화의상이나 문학작품·회화 속의 복식이미지 등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의류상품학분야는 전체 연구의 17.3%로서 두번째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1975~1979년도에 2편, 1980~1984년도에 9편, 1985~1990년도에 23편 등으로 1970년 이후 계속 증가되어 왔으며 1991~1995년 사이에 90편, 1996~1999년도에 202편

&lt;표 3&gt; 분야별 연구주제의 하위그룹별 분포

연구주제	주제의 하위그룹	N	%	연구주제	주제의 하위그룹	N	%
의복구성	기능성	31	12.7	복식사	한국복식사	120	56.6
	치수설정	17	6.9		서양복식사	26	12.3
	원형	72	29.5		동양복식사	54	25.5
	체형	100	41.0		복식방법론,기타	12	5.6
	봉제	16	6.6		계	212	100
	기타	8	3.3		의상사회 심리학	인상형성	33
	계	244	100	등조성		9	7.1
피복과학	피복재료학	71	25.6	유행		5	3.9
	피복정리학	108	39.0	역할		69	54.3
	피복위생학	98	35.4	흥미		11	8.7
	계	277	100	계	127	100	
복식의장학	복식디자인	93	31.6	의류상품학	상품선호도	48	16.4
	복식미학	185	63.0		의사결정과정	148	50.7
	일러스트연구	8	2.7		유행	12	4.1
	화장·헤어스타일	8	2.7		생활양식	16	5.5
	계	294	100		구매행위	29	9.9
복식문화	민족·민속복식	38	23.9		국제무역 및 기타	39	13.4
	종교·의례복식	31	19.5	계	380	100	
	기호학	90	56.6	기 타		85	100
	계	159	100				

으로 1990년 이후에 괄목할만한 증가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의류상품학 연구의 증가는 시대적으로 국내 의류산업이 유통개방과 더불어 제조업 중심에서 상품기획 및 판매, 유통에 이르는 다차원적인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전환을 맞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김해영의 선행연구에 나타난 의류학 전공자들의 선호과목 조사결과 복식의장학과 의류상품학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5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는 바 이는 패션산업이 정보산업과 소비자 지향산업이라는 점에서 패션정보의

수집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활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상표선호도 16.4%, 국제무역, 기타가 13.4%로 과거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유행, 구매행위 등의 연구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무역에 관한 논문이 상당히 많아져 유통시장개방 이후 글로벌마케팅, 인터넷마케팅 등과 관련된 내용과 섬유제품수출 및 해외브랜드에 관한 연구도 점점 증가하였다.

피복과학은 전체 연구 중에서 16.4%로 나타났으며 피복재료학보다는 피복위생학과 피복정리학의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피복재료학은 모든 섬유제품의 구성적 요소의 성질 및 원료생산과 관련된 생산적인 측면의 연구분야인 반



면 피복정리학은 피복재료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적인 측면이 강한 분야이다. 그리고 피복위생학은 인체-의복-환경의 시스템을 다루는 분야로서 의복재료의 위생학적 특성, 의복착용상의 위생학적 특성 및 의복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면에서 피복재료학은 섬유공학과 많은 관련을 갖는 반면 피복정리학과 피복위생학은 의류학내의 피복과학 연구자가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분야로 생각된다.

피복재료학의 연구주제 중에는 특히 역학적 특성과 상태에 관한 연구 및 신소재 합성섬유의 내부구조 및 물성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 피복정리학의 연구 중에는 천연염료의 염색성 및 염색건뢰도에 관한 연구와 고성능세제의 세정 메카니즘의 물리화학적 접근 등의 세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복위생학의 연구로는 특수복의 쾌적감에 관한 연구와 침상환경과 인체의 생리적 반응 연구, 착용량에 따른 생리적 반응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의복구성학 분야는 14.4%를 차지하는데 체형연구(41.0%)와 원형제작(29.5%)에 관한 연구가 많은 편으로 정찬진 등의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의복의 기능성은 31.6%, 원형제작 29.1%, 의복의 치수설정 20.3%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기능성 (12.7%)과 의복의 치수설정(6.9%)에 관한 연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복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석고법과 모아레법에 의한 동작시 체표면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어 기본동작에 따른 착용실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1990년 이후의 의복의 기능성 연구의 경향은 소매의 동작 기능성에 관한 인간공학적 연구와 하지의 체표변화에 관한 동작 적합성의 연구 등 보다 세분화된 기능성 연구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연구주제로 생각된다. 치수설정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기성복시대가 열리면서 치수 및 원형제작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의류제품의 치수문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며 의류생산업체마다 통일되지 않은 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통신판매가 활성화되면 치수의 통일이 선결되어야 하는 등, 특

히 이 분야의 연구는 산학협동 차원에 의한 공동의 연구가 필수적인 과제로 생각된다.

착의 기체로서의 체형에 관한 연구는 의복구성 및 제작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기성복이 의류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볼록정 다수인의 체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화할 필요는 절실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체형연구의 대상은 전 연령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남성체형 연구도 20대 남성과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체형연구의 연구대상 부위는 주로 상반신 체형과 하반신 체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브래지어 설계를 위한 유방형태 분석과 발형태 분석 등이 새로운 체형연구의 주제로 나타났다.

원형연구는 1970년대 후반에 중고급 기성복의 대두로 대량생산에서 요구되는 원형제작에 관련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이후 소량 다품종 생산화 경향이 나타나고 의류 생산업체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산업환경이 바뀌면서 원형연구 또한 CAD에 의한 원형제작의 연구가 가장 활발한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한 패턴설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형연구에서는 기본원형의 연구보다는 응용패턴의 연구와 소재와의 적합성을 고려한 패턴연구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복식사분야의 연구는 전체의 12.5%로서 1990년대 이전의 29.7%에 비해 상당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 바, 이미 1985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에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과거의 연구경향과 비슷하게 한국복식사연구가 중심을 이루어 56.6%로 가장 많았으며 동양복식사가 25.5%, 서양복식사 12.3%로 90년대 이전에 서양복식에 관한 연구가 동양복식에 관한 연구보다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동양복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80년대 전반까지 개괄적인 복식의 고찰에 관한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1980년대 후반부터 미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등의 인접학문의 이론에 의한 분석과 동양복식의 경우는 주변국가, 아시아국가와의 비교론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서양복식의 경우는 절묘 중심의 연구에서 속옷 및 장식 등의 다양한 여성복 중심에서 남성복에 대한 연구로 연구대상과 범위, 방법 등이 다양화 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의상사회심리학분야는 전체 연구의 7.5%로 1974년 대한가정학회지에의 처음 발표부터 199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 추세였으나 1990년 이후로 전체 연구 주제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징적 상호작용의 인상형성 (28%)과 의복의 동조성에 관한 연구(7.1%)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고 의복단서와 관련된 개인적인 심리적 부분은 연구의 양은 가장 많으나 (54.3%) 과거와 비교해 보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1970년대초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의상사회심리학이 지난 20년간 새로운 학문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므로 1990년 이후로는 기존에 연구되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의류상품학과의 연계논문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식문화분야는 전체연구의 9.4%로 복식연구의 한 주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하위분야로는 민족, 민속복식에 관한 연구 23.9%, 종교 및 의복복식이 19.5%, 복식의 언어적, 기호적 접근 및 기타 56.6%의 연구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복식연구로의 하위분야로 복식문화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의 중반 이후 의상사회심리학의 한 분야로 복식의 현상을 문화로 규정하고 복식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문화인류학적인 이론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아지면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의류학의 각 영역의 연구주제별 변화를 파악하여 21세기에 의류학이 나아갈 연구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1~1999년도까지 10년간 의류학 전문학술지로서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외류학회지, 복식지, 복식문화연구에 발표되었던 의류학 관련논문을 수집하여 연도별, 학회지별, 연구주제별 변화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59년 대한가정학회지의 창간과 한국외류학회지, 복식지의 창간 이후 의류학 연구는 꾸준히 증가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복식문화학회, 패션비즈니스학회 등의 설립과 함께 학회지 발간회수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1991~

1999년의 10년간 발표된 논문의 양은 과거보다 기하급수적인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며 연구주제도 다양화, 세분화되었고 특히 세분화된 각 분야간의 유기적인 연구 및 인접학문과의 학제적인 접근방법이 이 시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의류학 4대학회지 게재논문의 주제별 특성이 구분되고 있었는 바 한국외류학회지는 90년 이전과 같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분야는 피복과학이었고 복식지는 복식의장학, 복식문화학회지는 복식문화, 대한가정학회지는 의복구성학 및 피복과학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90년 이후에는 학회지별로 중심되는 연구분야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주제에 따른 본포는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3. 연구주제별 순위는 1) 복식의장학 (294편), 2) 의류상품학 (292편), 3) 피복과학 (277편), 4) 의복구성학 (244편), 5) 복식사 (212편), 6) 복식문화 (159편), 7) 의상사회심리학 (127편), 8) 기타 (85편)으로 나타나 과거와 달리 1990년 이후에는 연구주제별 구성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의류학의 모든 분야가 고르게 연구되고 있었고, 복식의장학, 의류상품학 분야가 1990년도 이후에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로 나타났다.

4. 복식의장학 분야는 전체의 17.5%로 1990년도 이후에 대단히 활발한 연구 경향을 띠어 심리학, 감성공학의 방법론을 이용한 의복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디자인발상 및 전개방법, 복식미학은 분석텍스트를 영화, 문학작품·회화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의류상품학 분야는 두번째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소비자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5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국제무역에 관한 논문이 상당히 많아져 유통시장개방 이후 글로벌마케팅, 인터넷마케팅 등과 관련된 내용과 섬유제품수출 및 해외브랜드에 관한 연구도 점점 증가하였다.

피복과학은 전체 연구 중에서 16.4%로 나타났으며 피복재료학보다는 피복위생학과 피복정리학의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구성학 분야는 14.4%를 차지하는데 체형연구와 원형제작에 관한 연구가 많은 편으로 의복의 기능성과 의복의 치수설정에 관한 연구는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특히 CAD에 의한 원형제작, 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한 패턴설계연구, 응용패턴의 연구와 소재와의 적합성을 고려한 패턴연구 등이 새롭게 연구되고 있었다.

복식사분야의 연구는 전체의 12.5%로서 상당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바 서양복식보다 동양복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고 미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등의 인접학문의 이론에 의한 분석과 비교론적 접근으로 연구대상과 범위, 방법 등이 다양화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의상사회심리학 분야는 전체 연구의 7.5%를 점유하여 전체 연구주제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1990년 이후로는 기존에 연구되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의류상품학과의 연계논문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식문화분야는 전체 연구의 9.4%로 복식연구의 한 주제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민족, 민속복식, 종교 및 의례복식, 복식의 언어적, 기호적 접근 등의 학제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의류학이 가정학의 한 분야로 한국에 소개된 이래 의류학의 역사가 깊어짐에 따라 의류관련학과와 증대로 의류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인력이 증가하여 의류학의 연구는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여 왔다. 앞으로 의류학이 사회에 기여하고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첫째, 의류학은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하여 인문·사회과학 분야 및 예술을 포함하는 통합된 연구분야로서 그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학제간의 통합적 연구 등의 필요성이 기대되는 학문이다. 의류학내에서 전영역별로 고르게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의류학 내에서 전문화·세분화된 연구활동 등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각 분야간의 유기적인 통합연구 및 관련있는 인접학문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연구영역의 확대 및 연구방법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래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를 예측하며, 어느 한 측면이나 한 분야만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세분화된 각 영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적인 형식의 연구모델이 제시되어야 하

리라 본다.

둘째, 실용학문인 의류학의 학문적 존립은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의류학의 존재가치를 높이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적요구에 대처하여야 하며 특히 산업과 교육은 상호의존적인 공동운명체로서 산업과 교육이 서로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적 관계를 형성할 때 더욱 발전 가능한 것이다. 의류산업도 지식집약산업·정보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의 산학 협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의류학 분야의 연구중 산업체와의 연계가 가능한 분야는 산업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의류산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이은영, 미래사회의 의류학, 한국의류학회 창립20주년 기념발표회, 1996.
2.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의생활, 대한가정학회편, 신광출판사, 1977.
3.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Ⅱ, 의류학, 대학가정학회지 편, 신광출판사, 1984.
4.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Ⅲ, 의류학, 대학가정학회지 편, 교문사, 1990.
5. 정찬진, 박선정, 황선진, 한국의류학연구의 현황과 제조명 : 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 15(1), 28-37, 1990.
6. 성화경, 이옥희, 유혜경,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인용된 참고문헌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8(5), 692-703, 1994.
7. 김효숙, 의복구성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현황과 제조명,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14, 103-114, 1991.
8. 김미자, 한국복식의 30년간 연구동향 : 1958-1989, 복식15, 55-61, 1990.
9. 이영혜, 이인자, 복식사·심리학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I : 1974-1994, 복식30, 19-40, 1996.
10. 김혜영, 의상 및 의류학 개설과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관한 조사 :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52(2), 81-96, 2000.